

해남 뜬섬 개발방향 본격 논의

공동발전협의회 구성 의견 수렴키로

환경단체, 중요한 논 습지 보존 주장

해남군 마산면 영암강 III-1(마산 3
구구) 지구 영암호에 위치한 일명 '뜬
섬'(위치도)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
'공동 발전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뜬섬 개발 공
사 시행으로 환경과 과의 가능성이 제
기돼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
농업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환
경과 농업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계각
층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은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공동협의회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공동협의회에는 군과 한국농
어촌공사, 마산면 농업경영인회, 농
민단체,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발전 협의회는 개발과 보존 논
란을 빚고 있는 '뜬섬'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밭주체(한국농어
촌공사)에 건의하게 된다.

뜬섬은 당초 쌀물 때에만 드러나는
섬이었으나 지난 1993년 영암방조제
공사후 농사가 가능한 193ha 규모의
섬으로 변했다.

이후 해남과 영암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개답공사를 벌여 경작을 시
작했으며 현재 2개 법인에서 농업용
으로 임시 사용중이다.

해남군은 땅사람 습지로 지정을 추
진하는 '뜬섬'은 생물종이 다양한 서
식지로 먹이사슬이 풍부해 희귀 조류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 철새들의 중간 도래지 역할을 하
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뜬섬'에 사업비
227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2013년 완공목표로
108ha 규모의 농지개발 사업을 벌이
고 있다.

이번 농지개발 사업에는 영농 편의
를 위한 고랑시설 1개소를 비롯해 ▲
영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조 저류지
3개소(4.66ha) ▲용수로(9.87km) ▲
배수로(12.56km) ▲방수제 2조(6.74
km)가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면적의 56%
(108ha)가 논으로 만들어지고 ▲자
연습지 15% ▲용·배수로 15% ▲수
조 저류지 3% 등이 조성된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뜬
섬은 중요한 논 습지의 보고(寶庫)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
며 '개발논리보다는 뜬섬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암강사업단 관
계자는 "현재 '뜬섬' 사업은 해남군의
'합법적 개발' 견의를 받아들여 농사
편의를 위해 기준 만들어진 농지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보완·발전
시키는 것"이라며 "당초 설계보다 환
경보존을 위해 습지 저류지를 많이
훼손했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뜬섬은 환경보
전과 농업이 복부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많은
단체에서 공동협의회에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마늘파종에 바쁜 농촌 들녘

강진군 작전면 평리마을 주민들이 최근 벼 수확을 마친 논에 저장용
마늘을 파종하고 있다. 강진군 마늘면적은 모두 327㏊로 3600t을 수
확, 54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효자품목이다.

〈강진군 제공〉

목포시 '삼양사 소음분쟁' 패소

대법 '사료공장 조업정지 취소판결' 상고심 기각… 이전 논의 빨라질 듯

목포시와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간
의 소음을 두고 벌어진 법정다툼(본
보 7월 13일자 10면 보도)이 3년 여
만에 업체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4일 목포시와 삼양사 목포 사료공
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목포시가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삼양사 목포사
료공장 조업정지 취소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7년 10월 목
포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내
린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에 대한 조
업정지를 둘러싼 분쟁이 사실상 종결
됐다.

이에 따라 보상에 이견을 보이면
서 지난 2002년 이후 담보상태에 빠

진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의 이전논의
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삼양사는 지난 1970년 목포시 석현
동 816번지에 공장을 준공, 가축사료
를 생산해 왔으나 지난 2003년과
2006년 삼양사 주변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아파트 주민
들이 삼양사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에 시달린다며 시에 수차
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007년
10월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에 조업정
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삼양사는 이
에 불복해 조업정지 취소신청을 법원
에 제기했다.

목포시는 광주지법과 고법의 1·2
심 판결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지난 7
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처럼 목포시와 삼양사간 행정소
송이 수년째 계속된다. 이전에 따른
보상금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장이 전
협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삼양사 목포사료공장 관계자는 '턱
없이 부족한 보상가를 제시해 공장이
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업체 및 협력업체 직
원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
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장이
전을 위한 목포시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동창고와 건조장 등 각종 수산관련
시설설치가 가능해 주민소득도 높아
질 전망이다.

신안군은 지난 1994년 우이도를 시
작으로 하여, 흑산면 5개 도서 낙도
지역에 내연발전소를 건립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우이도는 동양 최대 모래언덕
(沙丘)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관광
객이 붐비는 곳이며 장도는 섬지역에
서 발견된 국내 최초의 '산지습지'로
랍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서부취재본부=조남원기자 wncho@

완도군 "30개 기업·2000억 유치할 것"

민선 5기 목표 설정… 시설 보조금 등 혜택

"민선 5기에 30개 기업, 2000억원
의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완도군 직원들은 최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
치 촉진 추진 결의대회'까지 열며 비
장한 각오를 다졌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미래 성장동
력인 '해양 테크노폴리스 완도건설'
을 위한 ▲해양생물 ▲해양 에너지
▲해양관광 ▲해양 물류산업 등 4대

핵심사업을 토대로 민간기업 유치 등
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출범할 '완도개발공
사'의 토지은행 사업을 통해 본격적
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
침이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투자유치 성
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입지를 조기
에 확보해 나가고 '완도군 국내외

(1명)에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
며, 최우수상(1명)에 한국문화예
술위원회장상, 일반부 대상(4명)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각각 주
어진다.

참가신청은 오는 8일 오후 5시
까지 우편과 이메일(hn7387@
hanmail.net)·전화로 접수 가능하
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061-
536-7387)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신명나는 우리 가락의 향연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 9~10일 문예회관

'제19회 광주 해남 전국국악경연
대회' 오는 9·10일 이틀간 해남 문
예회관에서 열린다.

(사)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회
(지회장 김동석)가 주최·주관해

는 이번 대회는 신인부, 고등부, 노
인부, 일반부와 명고부로 나워 판
소리·무용·고·기악(가야금·병
창포함)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 시상은 명고부 대상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신안 우이도 24시간 전기 공급

만재도·장도 등 전력 해결

신안군 도조면 우이도와 흑산면 만
재도, 장도 주민들이 24시간 전기공
급을 받게 됐다.

신안군은 도서 내연발전소 발전설
비 용량증설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도서민 최대 속수원 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다고 4일 밝혔다.

이들 3개 섬은 내연발전소 발전설
비 용량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
치 못해 17년간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증설사업이 끝나면 3개 섬 458가구
929명의 주민에게 24시간 안정적인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해진다.

전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냉

농기계 무료수리 '호응'

농기센터 북구상담소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산하 북구 지
산농업인 상담소(소장 고재술)가 농
기계를 무료로 수리해주고 있어 농업
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고소장은 지난 6월 부임 후 노령화
와 부녀화로 간단한 농기계 수리마저
힘들어 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북광주 농협과 협의, 부
풀내금을 지원받아 현장 무상수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 244대를 수
리했으며, 주민 213명을 대상으로 농
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사고
율을 현저히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고재술 소장은 "농기계는 농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장비"라며
"일선에서 지도사업을 마치는 날까
지 지역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010-8337-1055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200+300+500평
 있습니다.

바닷가
전원주택 부지
200+300+500평

문의 010-8337-1055

금당 공인중개사

■ 정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접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매도 3948평
- 주유소 광산구 땅 491평 용자 5억 교환가능 10억
- 대지, 유통동 토지 401㎡ 대지 143㎡로변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만원 매도 4억9천만원
- 금남로5가 대지 1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8천
- 주택 동구 지구 대지 104평 공시지가 5850만원 매도 4300만원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천 매도 2억4천
- 마른통 주유소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 접 275㎡(83평) 1억5백
- 금남로 5가 유입구 뒤 주택 영업용 적합 공사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천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확장동 6천선 도로 대지 135 건평 173 대상 3억 매도 6억
- 원룸 건물 광주광역시 대지 108 건평 383평 감정 11억 8천 대출2억
5천선 세 9년 월 650 매도 6억7천
- 송정동 4천선 도로 대지 192평 건평 65평 감정 1억7천 10년 대출2억
5천선 세 9년 월 650 매도 6억7천
- 생활동 4천선 도로 대지 192평 건평 65평 감정 1억7천 10년 대출2억
5천선 세 9년 월 650 매도 6억7천
- 송정동 4천선 도로 대지 19